

르 꼬르뷔제의 형성기에 관한 연구

- 라 쇼 드 풍 시절, 1887-1917-

류 전 희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1. 들어가는 말

르 꼬르뷔제¹⁾는 30세에 파리에 본격적으로 데뷔하기까지 유년과 청소년기-형성기²⁾- 대부분을 고향 라 쇼 드 풍(La Chaux-de-Fonds)에서 보냈다. 그가 진지하고 감수성 풍부한 학생이었던 시절부터 후일 대작들에서 보이는 놀라운 통합을 이루어 내기까지 60년여에 걸친 방대한 작업들의 기반-철학적 사고, 작업방법, 마음가짐 등-이 이 시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은 여러 갈래로 추정가능하다. 이처럼 샤를르 에두아르 잔느레(Charles-Edouard Jeanneret)가 받은 교육과 글, 스케치, 도면, 여행일기 등을 바탕으로 문헌자료 및 답사를 통해 그의 형성기를 추적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 궤적을 따라 잔느레의 성장 배경, 학교교육, 자

기 훈련과정-여행, 실무-, 작품 등을 주제별로 연대기에 따라 서술하였다. 특히 그의 작품 총서(Oeuvre Complète)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초기 16년간의 작품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들을 중심으로 그 작품들이 그의 건축 수업과정에서 지니는 위치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제도권 내에서의 건축교육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르 꼬르뷔제가 현대 건축가들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거장이 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상당 부분 드러내 줄 것으로 판단된다.

2. 르 꼬르뷔제의 유년시절

2-1. 라 쇼 드 풍의 지역적 특성

잔느레는 프랑스와 인접한 스위스 국경지역인 라 쇼 드 풍에서 1887년, 10월 6일에 태어났다. 라 쇼 드 풍은 소규모 공방 위주의 수공업 시계생산-제작, 디자인, 장식 등-을 중심산업으로 하는 인구 27,000명 정도의 작은 도시였다. 당시 그의 고향은 19세기 동안 급격히 발전하면서 전통적으로 지속되던 목가적 시골 모습이 확일적 도시계획으로 한창 변모하고 있었다. 잔느레가 태어난 집은 주택가로 형성된 세르街

1) 그가 세례명 샤를르 에두아르 잔느레-이후 잔느레로 줄임-을 르 꼬르뷔제로 바꾼 것은 파리에서 오장판과 잡지 '신정신, L'Esprit Nouveau'를 만들던 33세때였다. 잡지에 다양한 필명으로 글을 쓰던 그는 모계 조상인 남불 지방의 'Les Jeannerets' 가문에서 '르 코르브지에(Lecorbesier)'란 이름을 따와 혈통의 근원을 찾고자 하였다. 이것은 그가 지중해지방에 대해 감성적 뿌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선택적 태도라고 보여진다.

2) 형성기(Formative Years)는 A.Brooks, Baker 등의 용어를 채택하여 파리에 정착하기 전까지의 시기로 한정하였다.

세르街 38번지(38 rue de la Serre) 인데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학교, 시립도서관, 중심광장, 음악당 등이 있는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다.(사진1) 라 쇼 드 풍은 수공업 시계산업이 점차 사양화되어 가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세기말, 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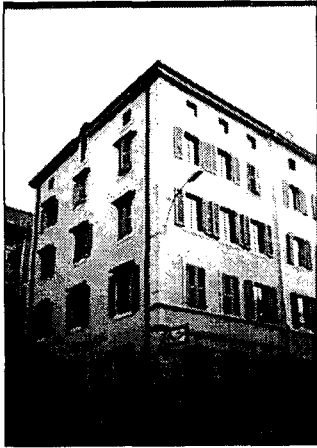


사진1) 잔느레의 생가, 2층, 유사한 연립주택들이 가로를 형성함

기초의 다양한 예술사조의 혼재된 양상, 열정,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 등을 큰 제한없이 접할 수 있었으며 '원형적' 형태언어의 표현에 관한 훈련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지역적으로 라 쇼 드 풍은 쥐라(Jura)산맥의 지방이라고 불리는 뇌샤텔(Neuchatel)지방의 중심도시로 1000m고도의 능선이 완만하지만 깊게 감싸고 도는 울창한 산자락에 자리잡고 있다.(사진 2) 좁고 음습한 겨울과 밝고 환한 여름이 대별되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펼쳐진 이 주변으로 르 로클(Le Locle), 빌(Biel), 뇌샤텔, 벨포르(Belfort) 등이 위치한다. 유럽의 중앙에 해당하는 이 지역은 12- 13세기 동안 알



사진 2) 라 쇼 드 풍 전경, 맞은 편 멀리 보이는 푸이리렐 언덕에 초기 작품들이 위치한다.

비파 전쟁(Albigensian war)을 겪으면서 엄격한 금욕주의를 지켜 낸 카타르(Cathar)교파가 정착하였다. 그 후 1598년의 낭트칙령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획득한 소수파 프로테스탄트(French Huguenots)들이 남불에서 종교박해를 피해 이 지역으로 이주한 이래 수세기 동안 독립적이며 용기있는 반체제적 성향이 강하게 지속되어 내려왔다.

후일 르 꼬르뷔제는 19세기, 마지막으로 프러시아의 통치를 받던 뇌샤텔 지방에서 무혈혁명을 통하여 프러시아를 몰아 낸 조부의 혁명적 기질을 자랑스럽게 회고하곤 했다. 이렇듯 그는 청년기까지 외진 국경의 산악지방에서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며 스위스인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을 배우고 자유로운 기질을 길러 나갔다.(사진3)



사진3) 쥐라산맥 원경, 고도는 높으나 능선이 완만하고 풍광이 아름답다.

2-2. 가정 환경

전형적 중산층이었던 잔느레家は 아버지 조르쥬 에두아르 잔느레-그리(Georges Edouard Jeanneret-Gris)의 부친부터 시계세공업에 이어왔다. 어머니인 마리 샤를로트 아멜리(Marie Charlotte Amélie)는 피아니스트이며 음악교사로 활동하였으며 가족의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분위기를 주도하였다. 청교도적 가치관을 지닌 잔느레 부인은 헌신적이며 엄격한 태도로 규율과 원칙을 중요하게 지키며 직업에 대한 자부심, 자신감 등의 가치를 자식들에게 길러주었

다. “무엇을 하고자 결정하더라도 너 스스로 그것을 확실하게 행하라, Whatever you set out to do, be sure that you actually do it” 이러한 구체적 실천의지와 능력을 강조한 어머니의 경구는 평생에 걸쳐 자식들의 주된 영감의 원천이었다고 보여진다. 르 꼬르뷔제는 후일 종종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 내곤 했다. 그가 평생 특정한 종교없이도 높은 도덕적 기준과 정신적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한 바탕에는 어머니로부터 영향받은 바 큰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에 비하면 아버지의 영향은 크지 않다. 지역 등산가협회의 회장을 지낼 만큼 등산을 좋아했던 아버지는 종종 잔느레를 데리고 봄, 가을의 알프스산맥 트레킹을 며칠씩 나서곤 하였다. 이 기회들을 통하여 잔느레는 내부모로부터의 해방감을 만끽하면서도 자연의 서사적 장엄함에 대해서는 외경심을 느끼며 자연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쌓아 나갔다. 이렇듯 잔느레가 10대 후반이 되었을 무렵, 그는 이미 그 지역의 생태, 기후, 지질 등에 친숙해져 있었다.³⁾(사진 3, 그림 1) 후일 그는 아버지로부터는 관찰력을 어머니로부터는 열정을 물려받았다고 하였다. 가족들의 엄격한 청교도주의, 예술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열정 등은 유년기의 잔느레를 만든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3. 르 꼬르뷔제의 학교교육

3-1. 미술학교(Ecole d' art)의 교육 내용

1902년 4월, 만 14세가 된 잔느레는 관습대로 가업인 시계세공업자로 훈련받기 위해 라쇼 드 풍의 미술학교에 입학하였다. 그 학교는 젊은이들에게 응용예술 분야를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873년, 설립되었다. 1887년에 -적

3)Le Corbusier, L'Art decoratif d'aujourd'hui p.198 “우리는 쉬지 않고 정상에 올라서서 광대하게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마치 바다처럼 무한하게 펼쳐져 난생 처음 보는 가장 웅장한 광경을 연출하였다. 이 시기는 채워지지 않는 호기심으로 가득차 있었으며 꽃의 안팎이 어떠한지, 새의 형태와 색깔이 어떠한지,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며, 폭풍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다 이해하고 있었다” G. Baker, Le Corbusier, 1996, p15-16 재인용



사진3)쥐라산맥 풍경

그림1)잔느레의 쥐라산맥 풍경화, 1902년경



힌 학교의 교육목표를 보면 “미래의 시계 장식가를 기르기 위해 발명의 정신, 순수한 취향, 장식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 완벽함’과 ‘높은 상품가치’를 절충하는 감각도 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⁴⁾ 잔느레가 입학할 당시, 학생은 365명으로 실제적 미에 관한 훈련을 병행하는 철저한 교과과정에 따라 제도, 회화, 조각, 기하학적 탐구, 실물 드로잉, 자연스케치, 답사여행, 예술사 강의, 금속작업과 세공 등의 전문인이 되기 전 단계의 기술적 훈련들이 행해졌다.

3-2. 스승 샤를르 레플라트니에의 영향

미술학교에서 잔느레는 향후 그의 기초를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 샤를르 레플라트니에(Charles L'Eplattenier)⁵⁾를 만났다.

4)Ibid., p.18

5)Charles L'Eplattenier(1874-1946). 뇌샤텔 출신. 부다페스트 Ecole des Arts Appliques에서 회화와 드로잉을 공부,

그는 개성있고 메시지가 담긴 강의가 인상적인 교수로 데생과 장식구성(dessin et composition décorative)을 담당했다. 파리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Arts)와 장식예술학교(Ecole des Arts Décoratif)에서 수준높은 교육을 받은 레플라트니에는 당시 유행하던 최신의 미적 이념들과 추상화 경향에 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존경하던 빅토르 푸르베(Victor Prouvé)가 만든 낭시(Nancy)예술학교를 모델로 삼아 학교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그는 존 러스킨의 영국 Arts & Crafts 운동의 경향과 윌리엄 모리스의 이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히 오웬 존스(Owen Jones)의 '장식의 법칙(Grammar of Ornament)'은 미술학교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루어졌다.⁶⁾(그림 2) 존스에 따르면 지역적, 자연적 특색을 건축적 형태와 장식 모티브의 진정한 기초로 변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예로써 그는 이집트의 주두는 나일계곡의 식물인 파피루스, 로터스 등의 모양을 본 딴 것이므로 생명력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그림 3)

그리하여 레플라트니에는 자연에 내재된 각각 구조에 대한 이해로부터 미적 원리의 원천이 시작된다고 믿었다. 그는 이를 응용하여 쥐라산맥 지역에서는 암반지층과 침엽수림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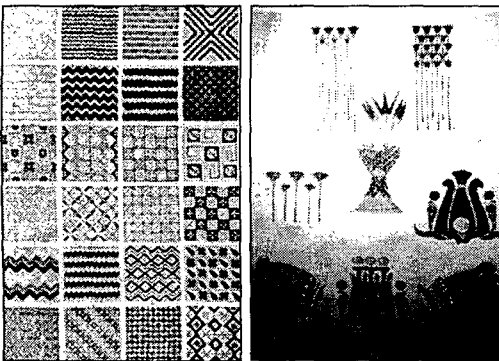


그림2)오웬 존스, '장식의 법칙', pl.IX
그림3)오웬 존스, '장식의 법칙', 이집트 문양

이태리, 튀니지, 런던, 독일, 프랑스 등을 광범위하게 여행하였다. 1893년 Ecole des Beaux-Arts서 잠시 수학한 뒤 1898년부터 1914년까지 라 쇼 드 풍 예술학교에 재임하였다.

6)P.Turner, The Education of Le Corbusier, p5-6

터 바람직한 형태를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 그 지질적 특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학생들에게 자연을 직접 세밀하게 관찰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물이 본질적으로 지니고 있는 기하학적 특성을 추상화하여 그린 뒤 단순한 조합법칙에 따라 그 형태를 의장적으로 패턴화하는 훈련을 강조하였다.⁷⁾ 잔느레가 그 지방의 토속적 기본형태로 전나무의 특성을 사실적 표현부터 패턴화시키기까지 연습한 그림을 통해 그 교육 내용이 잘 나타난다.(그림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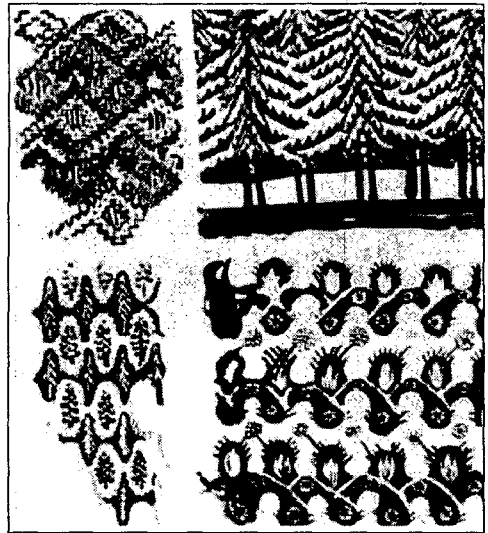


그림4)잔느레가 그린 전나무 스케치(上)

그림5)잔느레의 전나무 패턴화 과정(右)



레플라트니에는 결코 이론적 원리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문제를 풀어 가는 태중점을 둔 교육을 행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그는 학생들과 항상 더

7)“--to abstract the essential geometrical features of everything they draw & to translate the resulting forms into emblematic patterns following simple laws of combination--”, Baker, Op.Cit., p.25-28

불어 해결하고자 토의하고 때로는 학생들에게 일할 기회를 직접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그는 민족적 낭만주의의 기초에서 19세기의 여러 예술 사조들을 취합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낼 수 있어야 생명력을 지닌다고 믿었으며 그것을 학생들을 통하여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쉬지 않았다.⁸⁾

3-3. 미술학교의 조형훈련

미술학교의 교육 내용은 잔느레가 학창시절 그린 그림, 스케치, 도안 등에서 잘 나타난다. 그의 초기 회화들은 색감대비, 면구성, 비례 및 대칭 등의 디자인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자르 영향을 드러낸다. 그는 존 리스킨의 'The Elements of Drawing'에서 나타나는 화법 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로 그림연습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잔느레는 분석적으로 자연을 바라보고 자연형태를 핵심만 포착하여 단순화시켜 디자인하는 훈련을 철저히 쌓았으며 이는 1906년의 밀라노 박람회때 수상한 시계 디자인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러한 토대 위에서 그가 평생동안 조형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확실한 기초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6, 7, 사진 5)



그림6)잔느레의 나무 뿌리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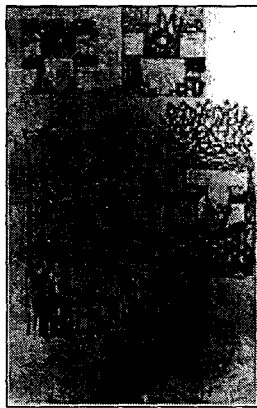


그림7)잔느레의 나무 뿌리 패턴화과정

가업인 시계세공인이 되기 위해 훈련을 받던 잔느레가 건축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의 시력이 초정밀한 시계 세공을 감당하기에 너무 약했기 때문이었다.⁹⁾ 잔느레는 화가가 되고자하였으나 레플라트니에는 제자들 중



에서 가장 출중한 재능을 보여 주는 잔느레에게 건축가가 되도록 강하게 권유한다. 그는 1905년, 18세에 미술학교에서 건축공부를 시작하였으나 미술학교인 탓에 건축에 필요한 구조, 재료, 수학, 물리 등의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후일 형태와 장식위주의 건축교육의 한계를 실무와 여행 등의 개인적 노력으로 극복하면서 건축을 배우게 된다.¹⁰⁾

4. 자기훈련 과정

르 꼬르뷔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건축을 배워나간 과정은 정규 건축교육을 받지 않은 거장들-미스, 라이트 등-과도 구분되는 독특함을 지닌다. 그 과정은 잔느레가 미술학교를 졸업하던 스무 살부터 시작되어 대학교육처럼 약 4년간 지속되었다. 그는 주로 여름철에는 이태리, 독일, 동방 등으로 서너 차례에 걸쳐 스케치 여행을 하였다. 겨울철에는 대도시-비엔나, 파리, 베를린-등에서 체류하면서, 건축가 사무소-페레, 베렌스-에서 실무훈련을 쌓거나 그 도시의 박물관, 도서관 등에서 독학하면서 부족한 지식을 채워 나갔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건축가가 되기 위한 도제단계(journeyman)에서 떠돌아다니며 배우고 익히던 것처럼 잔느레가

9)Ibid. p.vi-vii

10)그는 스승이 주선해서 1905년 말은 첫 작품인 팔레 주택 경우 구조와 시공에 대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3년 뒤 1908년 파리에서 페레 사무실경험을 통해서 취약한 구조에 대한 훈련을 보완할 수 있었다.

8)H. Allen Brooks, Le Corbusier's Formative Years at La Chaux-de-Fonds, p.vi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과정이었다. 그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깨치는 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다음 단계를 찾아 나섬으로써 총체적 건축 수련과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따라서 이를 통해 축적된 폭넓은 경험은 평생 흔들리지 않는 그의 저력이 된다. 잔느레는 이러한 훈련과정 동안 끊임없이 스케치, 글쓰기, 독서, 사진 등을 통한 자신만의 복합적 방법을 통해 그 경험들을 살아 있게 만들었다. 또한 그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철학, 문학, 역사, 예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엄청난 독서를 통해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면서 이를 통하여 그는 문화적, 인문적 소양을 쌓아 나갔다. 그의 유년과 청소년 시절 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책들은 많다.¹¹⁾

4-1.드로잉 훈련

어린 시절부터 화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던 잔느레는 그림을 그리는 일을 가장 친숙하게 즐겼다. 잔느레는 이탈리아로의 첫 여행이래 작은 스케치북(10*17cm)을 항상 지니고 다니면서 평생동안 80여권이 넘는 스케치북에 흑백 혹은 채색 스케치, 기록, 리스트, 계산 등으로 수천개의 그림과 글 등을 남겼다. '드로잉을 하는 이유는 본 것을 내재화시켜서 그의 개인적 역사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펜을 통해 사물들이 한번 파악되면 그것은 내내 그의 내부에 남아 있게 된다. 그것은 절대 지워지지 않게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이다.'¹²⁾

11)Paul V. Turner, *The Education of Le Corbusier*,에 의하면 유년과 청소년기에 그에게 영향을 끼친 책들은 다음과 같다. Henry Provensal's *L'Art de Demain*, John Ruskin's *Seven Lamps of Architecture*(1849)과 *Mornings in Florence*(1875), E.Grasset's *Method de Composition Ornementale*(1905), Owen Jones's *Grammar of Ornament* (1856), Hippolyte-adolphe Taine's *Voyage en Italie*(1864) 등과 Nietzsche's *Ainsi parlait Zarathustra*, E.Renan's *Vie de Jesus* 등의 철학서적이다.

12)잔느레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부모님께 보낸 장문의 편지를 지역신문에 게재한 내용, "La feuille d'avis de La Chaux-de-Fonds"중에서 재인용, Jean Jenger, *Le Corbusier Architect of a New Age*, Thames & Hudson, London, 1996, p25

그는 외부세계를 관찰하여 이미지를 그림으로 훨씬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창조 의 원천이 되었다. 특히 자신이 본 대상의 비례를 파악하기 위해 치수를 스케치, 노트 여백 등 곳곳에 표시해 놓았다. 그가 말년에 드로잉에 관해 쓴 글¹³⁾에 의하면 드로잉의 방법이 모든 작업의 원천으로서 평생동안 그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였다. 따라서 그가 건축가로서 형성되는 과정에서 스케치 여행들은 단순히 건축물들을 보고 오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충분히 소화하고 받아들여 체험하는 귀중한 것이었음을 후일의 설계들을 통해 볼 수 있다.

4-2. 이태리, 비엔나여행

잔느레는 학교 동료 레옹 페랭(Leon Perrin)과 함께 스무 살이 된 1907년, 9월에서 11월까지 9주간 이태리 여행을 시작하였다. 그가 첫 작품으로 설계한 팔레주택의 설계비로 이태리 북부의 마을과 도시-밀라노, 피사, 플로렌스, 시에나, 루카, 라벤나, 베니스 등-을 여행하면서 그가 보고 느낀 것을 많은 글과 스케치, 수채화 등으로 남겼다. 그는 후일 이 여행에 대해 아주 낭만적 어조로 회고하곤 했는데, 그가 유럽 예술과 건축의 걸작을 최초로 만나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스승 레플라트니에의 독려로 시작된 여행이었지만 잔느레가 나름대로 여행준비를 하면서 안내서로 삼은 책은 J. 러스킨의 "플로렌스의 아침, *Les Matins a Florence*"과 H. 텐느의 "이태리 여행, *Voyage en Italie*" 두 권이었다.¹⁴⁾ 그가 여행하면서 규칙적으로 부모님과 스승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가 만난 건물과 조각, 예술작품 등을 묘사하고 분석한 내용에서 그

13)---Drawing is the means an artist uses to grasp hold of that part (of Creation) which he has the desire to observe to know, to comprehend, to transform and to express. This knowledge and this eminently personal expression are the motive powers behind painting & sculpture.", J. Jenger, *Ibid.*, Documentation, p140

14)Paul Turner, 1977, Op. Cit. chap.II, pp30-43에서 그의 첫 이태리 여행이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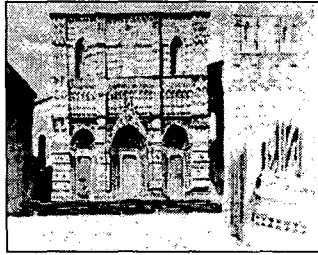


그림8)러스킨, 산마르코성당 수채화 그림9)잔느레의 시에나 성당 정면 수채화 및 상세스케치

책들의 영향을 알 수 있다. 그 예로써 잔느레는 러스킨의 책에서 가장 높이 평가된 피사성당과 베니스의 산마르코의 성당과 총독관저, 지오토의 프레스코화 등을 찾아가서 묘사된 건물과 예술작품들을 확인하고 러스킨이 그린 것과 유사한 분위기로 그림을 그려서 그 의미를 느껴 본 뒤 스승에게 보고하였다.(그림 8, 9)

텐느의 책은 잔느레로 하여금 예술작품에 대한 시각을 형성시키고 여행하면서 무슨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지식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즉 텐느의 고전적 요소와 단순 기하학적 형태의 찬미, 건축은 근본적으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예술이라는 사고, 환경적, 도시적 분위기의 관찰의 중요성 강조하는 것¹⁵⁾ 등은 잔느레에게 이 여행뿐만 아니라 동방여행과 '신건축을 향하여' 등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잔느레가 그린 그림은 그의 평생에서 가장 표현이 섬세하고 풍성한 바, 텐느의 예술에 대한 구분대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 하나가 시각적으로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예술적 대상(art-objects)-회화, 프레스코화의 채색과 구성, 고딕의 돌장식, 조각, 성당 바닥패턴, 건물의 색채 등의 표면적인 것-으로 보고 수채화로 화려하고 정교하게 묘사한 것이다.(그림 9) 다른 하나는 건축물을 논리적,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공간, 구조, 재료, 단면, 상세 등을 부분별로 표현하고 기록을 남긴 간략한 단색 스케치들이다.



그림10)플로렌스 Court of Bargello의 상세스케치 재료마감처리, 색감, 형태, 구조 등을 묘사와 설명.

이는 건축물을 특정한 환경적 요소와 역학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분석대상으로 파악할 때 취한 방법이다.(그림 10) 이 유형의 그림들은 후일 잔느레가 동방여행에서 보편적으로 취하게 되는 방법이며 수채화 등의 그림은 당시까지도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이 높다. 이 여행에서 잔느레가 가장 인상적으로 체험한 장소는 플로렌스 남쪽, 갈루쥬(Galluzzo)에 위치한 에마(Ema)의 샤프트릭 수도원으로 거의 정방형의 수사들의 숙소가 지닌 단순미와 간결한 질서에 매료되었다.

이태리 여행을 통해 잔느레는 서구 문명의 진수인 고대와 고전의 대작들을 체험하고 분석하면서 그림의 기량을 맘껏 발휘하였다. 또한 이론적 비평서들을 토대로 건축의 의미와 예술가의 역할, 예술의 본질 등을 독자적으로 깨닫는 계기가 된 교육적 여행이었다고 보여진다.

이태리 여행을 마친 두 친구는 비엔나로 간다. 비엔나에서 보낸 겨울 6개월 동안 잔느레가 한 작업은 명확하지 않다. 그는 비엔나의 순수한 추상적, 형태주의적 디자인을 좋아하였으나 여전히 르네상스의 고전적 대작에도 심취했다. 그에게 J. 호프만 사무실에서 일자리를 제안했으나 파리로 가기 위해 거절하였다. 이 기간동안 그는 오페라구경을 다니며 고독하게 내부로 침잠해 들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여행에서의 경험, 아이디어 등을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켜 나갔다. 비로소 만 스무 살의 잔느레는 성장기의 첫 매듭을 묶게 되는 것이다.

15)Ibid. p42, 동방여행을 동행한 친구 크립스타인의 관심분야가 풍물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여행지역의 구성구석을 다니며 삶의 모습을 보고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4-3. 동방으로의 여행(Voyage d'Orient)¹⁶⁾

1910년 가을부터 1911년 5월까지 베를린의 베렌스사무실에서 수련을 끝낸 잔느레는 엘 그레코를 전공한 예술사가 친구 오귀스트 클립스타인(Auguste Klipstein)과 동방순례를 시작하였다.¹⁷⁾ 그 여행은 비엔나를 출발, 부다페스트, 부카레스트, 터키, 콘스탄티노플, 그리스 등지를 돌아 이태리를 거치는 긴 여정이었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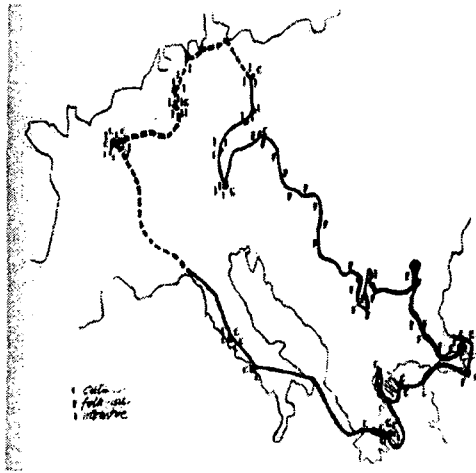


그림 11)이태리, 독일, 동방여행의 지도, 1911

독일에서의 경험은 잔느레가 중세적 취향에서 벗어나 비로소 근대적 시각과 고전에 대한 안목을 가지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동방여행은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태리여행보다 새로운 문화적 충격과 건축적 감수성을 발견하고 눈뜨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경험들은 그의 책 '동방여행'과 '신건축을 향하여'에서 다양하게 표현된다. 어린 시절을 어두운 침엽수림과 안개낀 계곡에서 보낸 잔느레는 여행동안 지중해의 쪽빛 바다와 찬란한 햇살, 눈부신 백색의 단순한 형태의 건물들,

16) Le Voyage d'Orient (Forces Vives, 1966)는 잔느레의 두번째 책으로 1912년, 1914년 두차례나 출판코자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그가 죽기 불과 몇 주전 출판을 허락하였다. 영역판은 Ivan Zaknic이 혼란된 스케치들을 제자리에 위치시켜 'Journey to the East'로 1987년 MIT에서 출판되었다.

17) 동방여행을 떠난 계기가 잔느레가 자신의 지중해적 뿌리를 확인코자 하는 시도였다는 설명은 Turner, Op.Cit., p83



그림 12)콘스탄티노플전경 주 18의 설명(左)
그림 13)스там볼Stambul의 길, 목조주택과 어울린 녹색 풍경(上)

푸른 초목에 매료되었다.¹⁸⁾(그림 12) 그는 콘스탄티노플, 아크로폴리스, 아테네, 아토스 등의 도시에서 넘쳐나는 근동지방의 정서와 깊은 정신적 분위기에 심취하였다. 번잡하면서도 흥미진진하고 독특한 터키와 콘스탄티노플에서 문화와 건축, 풍물을 체험하며 7주를 머물렀다. 그는 터키의 전통 목조주택과 크고 단순한 매스 속에서 위엄 넘치는 모스크 등이 건축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것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그림 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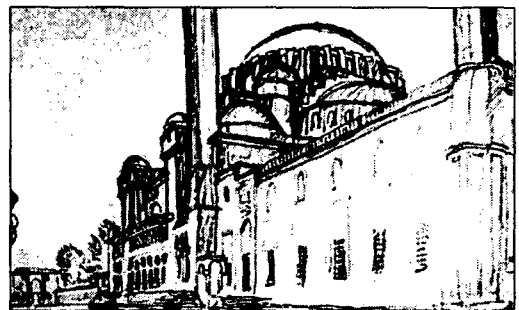


그림 14)술레이만의 모스크, 성소피아 성당의 것보다 공간, 색감, 빛 등 그림과 묘사가 훨씬 다양하다.

잔느레는 아토스산(Mount Athos) 수도원에서 18일간을 체류하는 동안 사경을 헤맬 만큼 아프면서 그의 존재를 뒤흔드는 초월적 체험을 하였다. 이 경험을 통해 아토스산을 떠날 때는 그는 자신의 내부에 잠재된 건축에의 소명의식을 깨닫게 된다. 그는 건축적 상징들이 지닌

18) Ibid. Constantinople, p87, 그림 12 스케치의 메모 "Under the bright light, I want a city all white, but the green cypresses must be there to punctuate it"



그림 15) 아크로폴리스의 원경

무한한 의미를 갑자기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드러내고 창조하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였다고 쓰고 있다.¹⁹⁾

콘스탄티노플을 떠나 아테네로 간 잔느레는 파르테논이 가진 빛나는 장엄함에 완전히 빠져 들었다.²⁰⁾ 그는 4주동안 매일 날씨와 상관없이 아크로폴리스를 실측하고, 사진찍고 그리면서 흥미한다. 그는 차갑게 서있는 파르테논의 아름다운 부조를 탐색하면서 '아크로폴리스가 예술과 건축의 전형(Criterion)'이며 '무한한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게 된다. 그 감정이 '찬미, 찬양, 절망'²¹⁾ 등을 오가면서 아크로폴리스와 파르테논이 주는 교훈을 어떻게 살려낼지를 치열하게 고민하였으며 이 체험은 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그림15-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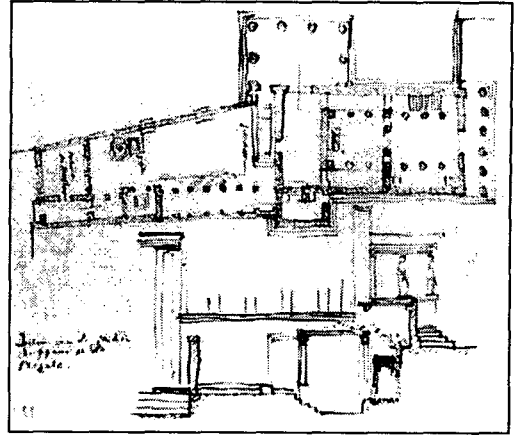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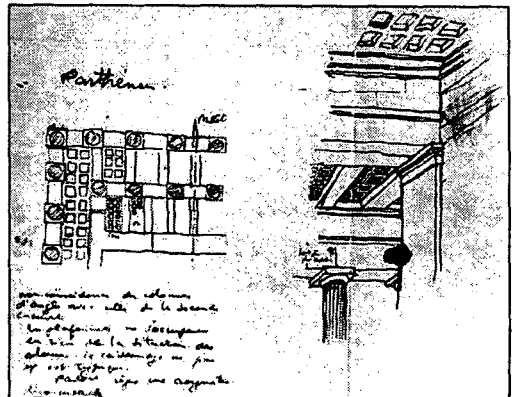


그림 16) 에렉테이온 평면과 단면

그림 17) 파르테논의 천장 상세스케치



이태리의 폼페이, 로마, 나폴리 등지를 여행하는 동안 잔느레의 주된 관심은 고대, 고전이었으며 르네상스나 바로크 유적에 대한 관심은 부차적이었다. 그 중 산 마르코, 캄피도글리오 등 여러 광장의 유형을 그린 스케치들을 보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눈과 형태의 단순화에 익숙한 덕분인지 전체 배치, 건축공간이 가장 인상적으로 펼쳐지는 전경, 그에 따른 평면, 단면, 공간의 크기와 깊이 등으로 그가 만나는 장소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概念化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18)

그는 여행의 마지막 무렵, 이태리여행에서 인상깊게 보았던 에마의 샤르트뢰즈 수도원을 다시 방문하여 스케치를 남겼다.²²⁾(그림19) 그는 아토스산에서 엄격한 질서 속의 생활과 규율에 매료되었던 경험과 더불어 더욱 인상적으

19) "The obsession for symbols that lies deep inside me is like a yearning for a language limited to the only few words. My vocation may be the reason for this: the organization of stone & timber, of volumes, of solids & voids, has given me, perhaps, a too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vertical & the horizontal, & of the sense of length, depth, & height as well. And I think that such elements, & these very words, which possess infinite meannig,---in its complete & powerful unity, expresses them all." Le Corbusier, Ibid. p.176

20) Ibid. pp.209-238, 'The Parthenon'에서 그는 아테네에 도착한 날 마음 속에 예술적 사과의 이상향으로 꿈꾸어 오던 아크로폴리스와 마주 하기에는 너무 흥분되어, 그 곳에 올라가지 못한 채 커피만 마시며 하루해를 보낸 것과 그는 파르테논과 마주치는 감격과 충격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21) "The first shock was the strongest: Admiration, adoration, and then annihilation. But it disappears & escapes me!--It is a prophetic art--one cannot escape. As insentient as an immense & unalterable truth", Ibid. p.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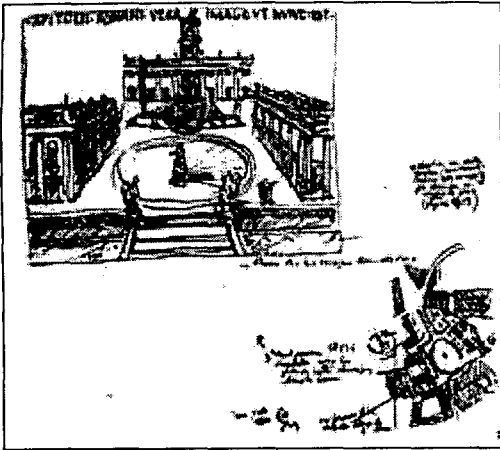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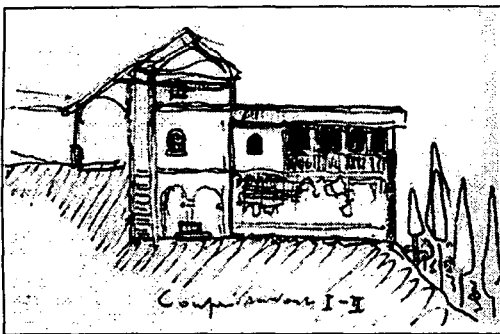


그림 18) 캄피도글리오광장 스케치, 조감도 전경
그림 19) 에마수도원의 단면스케치



로 느낀 것으로 보인다. 이 여행을 마지막으로 체계적이거나 전형적 훈련과정은 아니었으나 4년 2개월에 걸친 그의 독립적 건축 수련기간은 끝난다. 또한 독자적 건축기행은 잔느레의 창조적 건축작업의 든든한 기반과 모태가 된다.

5. 실무 경험

5-1. 오귀스트 페레(August Perret) 사무실

1908년, 고향에서 자크메 주택과 스토쥬 주택, 두 프로젝트를 마친 잔느레는 비엔나를 떠나 파리로 간다. 그는 불어를 무리없이 구사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준비가 없이 도착하여 학교에도 입학하지 못한 채 3개월을 설계사무소의 일자리를 찾아 다녔다. 이태리 여행의 그림이 여러 건축가들의 주목을 받았으나 마침내 페레 사무실에서 일할 기회를 얻게 된다. 그

당시 구조와 시공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던 잔느레에게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졸업한 뒤 구조공학 전문가로 성가를 높이던 페레 형제와의 만남은 행운이었다. 특히 오귀스트는 잔느레가 지닌 잠재력에 주목하였는지 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주며 그가 건축에 대해 몰랐던 부분에 새롭게 눈뜨도록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당시 잔느레가 고향의 스승에게 보낸 편지에는 스승이 가르쳐 준 형태위주의 건축교육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자신이 건축에 대해 아는 바가 하나도 없으며 무엇을 모르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토로하는 내용이 많이 나온다.²³⁾

잔느레는 원하는 대로 오전은 실무경험을 쌓고 오후에는 자유롭게 박물관, 성당 등의 옛 건물을 위주로 답사 다니면서 부족한 철학, 문학, 인문교양 등 다방면의 지식도 더불어 많이 쌓았다.²⁴⁾ 그는 밤에는 에콜 데 보자르에서 개설하는 건축사 수업 특히 로마네스크 건축에 대해 공부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미 페레의 사무실에서는 프랑클랭街的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가 세워진 후였으므로 공업화와 표준생산에 관해 상당한 노하우가 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느레는 이 시기동안 근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중세적 취향에 심취한 나머지 페레의 최신작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²⁵⁾

1909년 11월이 되자 그는 16개월간의 파트타임 일을 마치고 집으로 잠시 돌아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파리에서의 경험은 그가 건축이 단순한 형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건물 부재(component)의 표준화와 공업화의 개념이 돔-이노 구조로 후일 그의 건축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2) Ibid. p.242-245, 이 경험은 잔느레-페레주택부터 immeubles-villas, 신정신관(L'Esprit Nouveau Pavillon) 등의 작품에서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진다.

23) J. Jenger, Op.Cit. p.19

24) 이 시절 잔느레가 읽은 책들은 페레의 강한 권유로 구입한 비올레 르 북의 'Dictionnaire' 10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들레르, 플로베르, 루소, 니체 등의 철학과 문학서적 등에 심취한 것으로 보인다. P. Turner, Op. Cit. p.45-69

25) H. A. Brooks, 1982, Op. Cit. pp.xx-xxi

5-2. 페터 베렌스(Peter Behrens) 사무실

잔느레는 1910년 4월 독일 뮌헨으로 여행한다. 그는 뮌헨 도서관에서 독일의 가로, 광장, 플라자 등을 분석하고 연구를 하며 정신세계가 한껏 고양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적극적 태도로 변했다. 당시 테오도르 피셔(Theodor Fischer)를 만나 그를 통해 독일 건축가, 디자이너, 미술관 관계자 등을 소개받는다. 이를 통해 독일 공작연맹의 주요 인물들과 교제하면서 당시 가장 선구적 역할을 맡고 있던 페터 베렌스의 사무실에서 5개월 간 도제생활을 하게 된다.²⁶⁾

1910년 6월 그는 레플라트니에의 주선으로 고향의 미술학교에서 독일의 산업과 연계된 수공예에 대한 보고서 요청과 자금지원을 해 줌에 따라 독일을 여행하면서 학교와 공장을 방문하게 된다. 수공업의 시행방법, 디자인과 생산, 예술생산품의 판매 등에 관해 쓴 잔느레의 보고서는 정치적이면서도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였다. 그 내용은 프랑스는 문화유산에 기댄 나머지 비생산적이었던 반면, 독일은 국가건설의 의지가 넘쳐나고 의욕적이라고 파악하였다.²⁷⁾ 특히 AEG의 수석디자이너로서 산업디자인까지 해내는 베렌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주목하였다. 그는 AEG가 자체 생산품-부엌용품, 방열기, 램프, 글자형에 이르기까지-들을 통해 AEG의 통합된 이미지를 형성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독일 산업주의(Industrialism)를 이끌어 나가는 것을 상당히 관심있게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프랑스가 예술의 중심이라면 독일은 생산의 위대한 중심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시 잔느레는 어린 시절부터 지배적 영향을 끼쳐 온 아르 누보의 경향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던 바, 독일에서의 경험은 짧은 기간이

였지만 잔느레가 19세기적인 시각을 포기하고 근대적 취향과 안목으로 변하게 되는 급진적 계기를 만들었다.

5-3. 연합 예술 아틀리에(Ateliers d'art reuni)

1912년 1월, 24세가 된 잔느레가 동방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 왔을 때 스승 레플라트니에는 미술학교 내에서 새로 만든 연합 예술 아틀리에에서 건축담당 교사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분과의 설립목적은 지역의 자연현상을 새로운 문화를 재창조하는 원천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잔느레는 옛 동료들과 함께 연합 예술 아틀리에를 시작하면 자신의 경력이 그 지역을 위해 보람있게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의 학교에서의 활동은 2년만에 끝났다. 그 이유는 건축교육이 시계산업에 대해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해가 부족한 지역정치인들의 공격과 갑자기 인기가 올라가는 새 분과의 의욕적 활동에 대해 질시하는 기존 분과 교수진과의 갈등에 못 이겨 레플라트니에가 사임하였기 때문이었다. 잔느레는 독일과 프랑스 친지들인 페터 베렌스, 엑토르 귀마르, 유진 그라셋(Eugene Grasset)등에게 호소문을 보내어 주의를 촉구하였지만 그들의 호응만으로는 설득력을 지니지 못한 채 건축분과는 문을 닫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스승과 점차 결별하게 된다. 이미 시계산업은 대량생산화되면서 수공예생산에 집착하는 레플라트니에의 아이디어는 구태의연한 것으로 느껴진 반면, 잔느레의 사무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 작품 분석

르 꼬르뷔제의 초기 작품들은 작품을 설계할 당시의 과정마다의 교육, 훈련, 경험이 특징적으로 잘 구분된다. 라 쇼 드 풍의 외곽을 둘러싼 가파른 언덕(Pouillerel Hill)의 숲 속에 위치

26)이 당시 그로피우스는 잔느레가 오기 몇달전 사무실을 떠났으며 미스는 1911년 잔느레가 드레스덴으로 떠날 무렵, 사무소에 입사, 셋이 같이 일한 기회는 없었다. Moos p. 12
잔느레는 베렌스를 너무 권위적이고 독재적이라고 생각하고 후일 이 사무소경험을 잘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27)H. A. Brooks, Op.Cit., pp. xxi-xxii, 잔느레는 1911년 4월 베렌스 사무실을 그만 두고 7주동안 보고서 'Etude sur le mouvement d'art décoratif en Allemagne, La Chaux de Fonds, 1912'를 집필한 뒤 5월 동방여행을 떠난다.

한 초기 세 주택들은 그가 예술학교에서 받은 장식적, 조형적 교육의 영향이, 동방여행 후 설계한 잔느레-페레 주택 등은 그가 여행 동안 인상깊게 받아들인 건축적 경험을 곳곳에서 살려 보고자 한 의도가 잘 드러난다. 그리하여 마침내 빌라 슈와브 등에서는 장식을 배제하고 기하학적 구성을 가지는 그의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²⁸⁾(그림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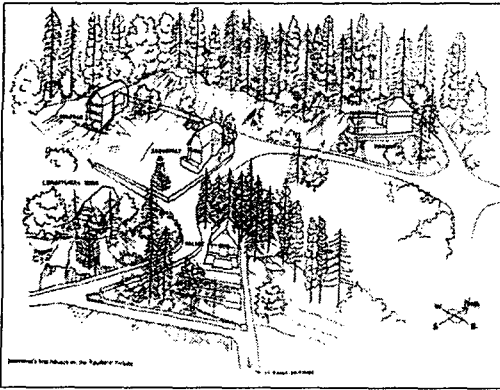


그림20)초기주택 4채가 위치한 푸이러렐 언덕, 왼쪽 위부터 스토쎈, 자크메, 팔레, 오른쪽 위 부모님집임

6-1. 첫 작품 팔레 주택(Villa Fallet)

1905년, 레플라트니에는 18세의 제자 잔느레에게 실무기회를 주기 위하여 예술학교의 이사이며 그 지역의 유명한 보석상인 루이 팔레(Louis Fallet)를 설득시켜 그의 집을 설계할 기회를 주었다. 비록 잔느레는 파사드와 인테리어설계에 대한 경비만 받았지만 자연을 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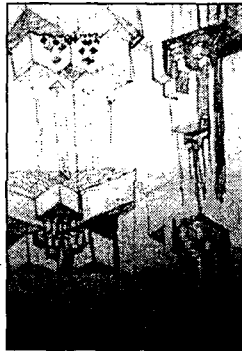


그림 21)인방스케치, 시계디자인과 유사하다.

28)다행히 이 주택들은 거의 원형이 보존되어 아직도 잘 사용되고 있으며 외관들은 접근이 가능하다. 이중에서 잔느레-페레주택은 현재 사람이 살지 않아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실내의 가구는 다 소거하여 보존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슈와브 주택은 현재 내부가 개조되어 시계회사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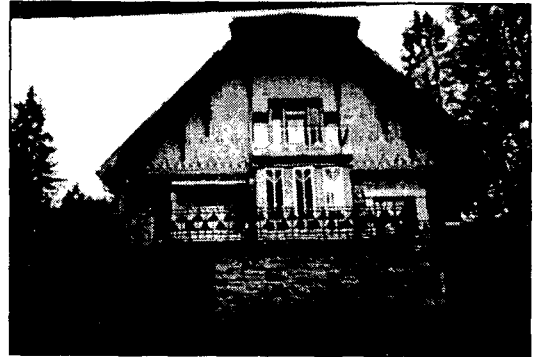


사진 6)팔레주택 정면

구하면서 익힌 완벽한 유기체로서의 집이란 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붕형태부터 소나무가 뿌리, 등지와 가지를 통해 서듯이 내 외부의 장식, 창틀, 철제난간, 벽장식, 대문장식 등을 전나무 모티브로 만들었다.²⁹⁾(그림20, 사진6, 7)

대지 조건상 남동쪽으로 가파른 경사지여서 도시로의 전망이 확보된다. 또한 북서향으로 전나무 숲이 막혀 있어 경사진 서쪽 도로로만 진입이 가능하다. 팔레 주택 자체는 그 지방의 보편적 살레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15개월 간 시공할 만큼 섬세한 박공 지붕과 외벽면의 풍부한 장식이 특징이다. 조적조로 처리



사진 7)실제 지어진 인방 주변 상세

한 막돌쌓기 인방, 돌과 나무, 채색된 회벽, 주철장식 등 여러 가지 재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아주 풍부하게 나타나지만 짜임새나 통일

29)팔레주택을 설계할 당시 잔느레의 생각과 다양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 러스킨의 'Seven Lamps of Architecture'의 영향에 대해 Baker, 1996에서 잘 나타남.

감은 부족해 보인다.(사진7)

외부에 비해 따뜻한 색감의 붉은 나무로 전체가 마감된 거실은 외부와 동일한 전나무의 모티브가 멋진 계단 손잡이, 난간, 천장, 조소적으로 처리한 벽면까지 통일감있게 장식되어 있다. 당시 주택들과는 대조적으로 멋진 나선형 계단에 의해 2개 층으로 뚫려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다.(사진 8) 시공을 담당한 르네 샤파라즈(René Chappalaz)가 시공한 다른 건물보다 디자인이 훨씬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을 보아 잔느레의 디자인 역량을 엿볼 수 있다.



사진 8)팔레주택 내부, 나선형 계단과 벽면, 장식

6-2.스토쩌 주택(Villa Stotzer)과 자크메 주택 (Villa Jaquetmet)

1908년 잔느레가 이태리 여행을 마친 뒤 비엔나에 머무는 동안 의뢰받은 두 주택은 팔레주택에 비하면 전체적으로 주택규모가 작으면서 장식이 약화되어 나타난다.³⁰⁾ 건축주들은 진보적 성향을 지닌 시계무역상들로서 팔레주택을 보고 젊은 잔느레에게 주택을 의뢰할 만하다고 결정하였다.³¹⁾ 북서쪽으로 경사진 도로로 접근되는 팔레 주택의 맞은편 대지의 자크메 주택은 비교적 평평한 대지에 위치한 반면

30)이 주택들에서 비엔나의 유행하던 와그너나 울브리히 등의 모더니즘 영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이태리여행의 스케치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지붕 등에서 나타난다.

31)건축주 중에서 스토쩌부인은 팔레의 조카였으며 울리스 킬 자크메(Ulysse Jules Jaquetmet)는 그의 처남이었다. 팔레주택의 경우처럼 비엔나에서 머물면서도 잔느레는 디자인에 대해 스승에게 자문받고 시공은 샤파라즈가 담당하였다.



사진 9)스토쩌 주택 정면(上)

사진 10)자크메 주택 정면(下)

스토쩌 주택은 동일한 도로의 막다른 끝단에 위치하며 남동향으로 가파른 경사지에 면한다.(사진 9, 10)

건축주들은 두 세대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가능한 집을 요구하였으므로 지하층부터 다락방까지 4개 층으로 만들었다. 두 주택이 프로그램은 달랐으나 잔느레는 거의 유사하게 해결하였다. 대지의 가장 높은 지점인 북측 사면에 출입구를 낸 것, 내부에서 중심축 상에 좁게 위치한 계단실, 부엌, 욕실, 서재 등을 동서 향의 양단에 두고 일련의 창을 통해 채광과 전망이 확보되도록 처리한 점, 거실과 식당, 주인침실은 각 층의 남단에 배치하여 충분한 햇빛과 전망, 자연을 끌어들이 수 있도록 처리한 점 등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그림22, 23)

두 주택의 외관은 그 지방에서 나는 거친 막돌과 장식 안된 석회벽면으로 구성된다. 모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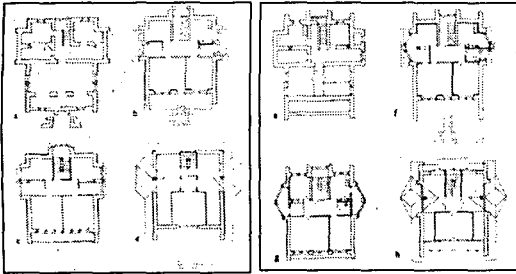


그림 22)스토퍼주택 평면 그림 23)자크메주택 평면

리 부분을 거친 돌로 내쌓아 강한 이미지의 입면을 만들어 내며 박공지붕을 다르게 처리하여 두 집이 다른 실루엣을 만들어 낸다.³²⁾ 지붕형태가 스토퍼 주택은 장축을 강조하여 단순하게 처리되며 자크메 주택은 끝단을 한 번 꺾어 축성을 약화시켰다. 두 집이 다른 형태로 만들어진 두꺼운 목재 브라켓이 지붕을 받치고 있다.

(사진11) 두 주택은 잔느레에게 건축가가 되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가르쳐 주었다. 비록 시공은 샤플라즈가 맡았지만 그는 비엔나에서의 고독한 설계과정과 스승의 혹독한 비평, 한정된 예산과 복잡한 프로그램 등 모든 작업을 전적으로 자신의 몫으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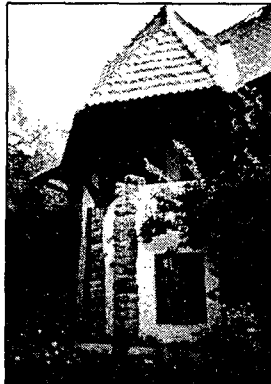


사진11)자크메 목재브라켓

6-3.잔느레-페레주택(Villa Jeanneret-Perret)

잔느레는 1911년의 동방여행의 경험을 통해 건축에 대해 새로운 소명의식에 고취되어 미술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치고 있었다. 1912년 상반기 동안 잔느레는 동방여행의 경험과 아이디어, 페레와 베렌스 사무실의 실무를 통해 배운 기술과 건축적 사고와 급진적 취향의 변화 등을 실현시켜 볼 수 있는 부모집인 잔느레-페레

32)디자인 과정동안 석회벽면을 장식하는 많은 스케치를 남겼지만 시공과정에서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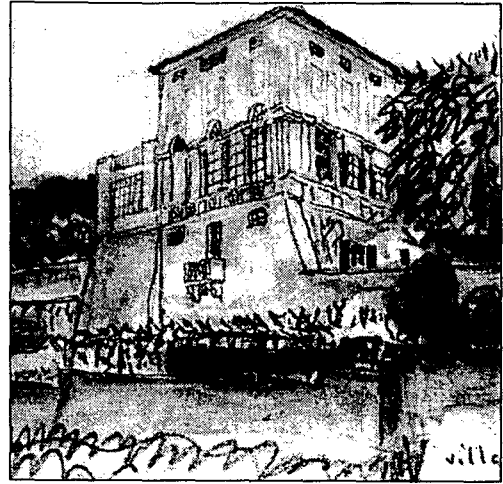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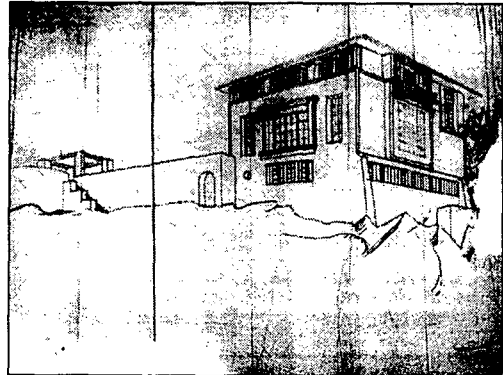


그림24)폼페이 주택, Villa Lante, 1911

그림25)잔느레-페레 주택 투시도, 1912



주택을 설계하였다. 그는 그간의 경험들을 다양한 쉼들로 반영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이 나타난다.(그림 24,25, 사진 12) 또한 이전 작품들과 달리 단순하고 기하학적 형태와 최소한의 장식적 요소를 조합하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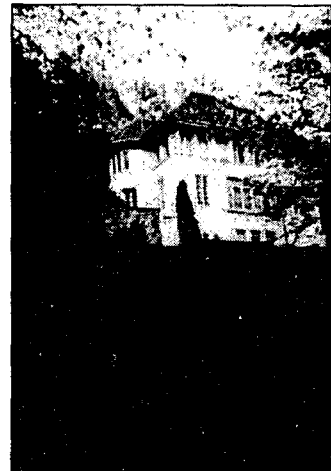


사진 12)잔느레-페레주택 전경

되었다. 대지는 앞선 세 채가 있는 언덕부근 몽타규(Montague)街에 위치한다.(그림20 참조)

이 주택의 대지는 서북쪽이 숲으로 둘러싸이며 북동쪽 사면은 거의 급경사이나 앞선 주택들처럼 남동향으로 전망과 마당이 열린다. 잔느레는 이러한 대지조건을 이용하여 주정면을 서남향으로 돌아 앉혀 동남향을 택한 앞선 세 집과 다르게 풀어냈다.(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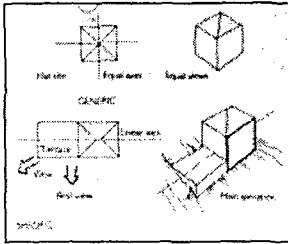


그림27)주택배치개념(上)



사진13)진입 개구부(左)



사진14)올라가면서 마주치는 남동쪽 입면, 세 개층으로 구성, 한 층이 더 노출된다. 그림 19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경사진 앞마당을 두 레벨로 정리하여 주택의 위치를 가장 높은 기단 위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아크로폴리스에서처럼 진입동선의 방향을 우회시키면서 건물을 감상하면서 올라오게 하는 방식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을 알 수 있다.(사진 12, 14) 그는 이 경험을 점진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넓고 얇은 박석 계단, 본채로 진입하기 위한 작은 개구부, 이를 통과하면 마주치는 좁은 계단, 키오스크 등을 만들었다. 특히 기단 밑의 축대를 통과하기 위한 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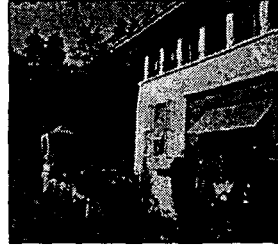


사진14)1912년경 키오스크, 현재는 돌로 만든 휴게공간으로 변화였다. 사진 15)주택의 남서쪽 입면, 주정면으로 반원으로 처리함



른 키 만한 개구부는 그가 회교사원으로 진입할 때 전실이 가지는 인간적인 스케일로의 전환에 대한 묘사를 연상시킨다.³³⁾(사진13)

이 개구부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야를 가로막는 좁은 십여 개의 계단을 오르면서 마주치는 것은 주택의 정원의 남쪽을 막아주는 키오스크-지금은 돌로 만든 간단한 휴식 시설로 변경-이다.(사진14) 이제 우리는 집은 뒤편에 서게 된다. 방향을 돌리면서 주택의 남쪽 모서리부터 시야에 들어온다. 남서쪽 입면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현관으로 접근하는 길목에 멈추어 서야 그 동선의 의도적 흐름을 끊을 수 있다.(사진15) 그리하여 정작 집의 주출입구는 가장 후미진 북동쪽에 한참 후퇴하여 위치한다.

이 동선의 흐름에서 벗어난 현관 방향과 일치하여 만들어진 파고라는 동선의 진행 방향에서 무관하게 실제적으로 별 효용이 없이 대지의 북서쪽을 마무리짓는다.(그림 28, 사진 16) 이 파고라는 남쪽의 동양풍 키오스크, 동북쪽 입면의 2층 돌출창 등과 동방여행 스케치 빈번

33)Le Corbusier, Towards A New Architecture, p.167, 이 부분에서 그는 소아시아의 한 사원(Green Mosque, in Broussa)이 외부공간에서 사원으로 들어가기 위해 정상적 키높이의 아주 낮은 전실을 거치면서 이 사원을 감상하기 위해 필요한 스케일의 전환이 가능해 진다고 설명한다.



그림 28)폼페이 한 주택의 진입 파고라 스케치, 1911

하게 나타나는 이미지들이다. 또한 대지의 동북쪽 단면조건이 에마의 수도원과 유사하게 낭떠러지에 면한 것을 응용하여 남,동쪽의 입면이 한개 층이 더 드러나도록 해결하였다.(사진 19) 사진 19)향에 따른 단면 조건의 변화를 반영함(右)



사진18)실제 지어진 파고라, 현재 이용하지 않음.



그림29)다양한 움직임의 도마뱀 스케치, 미술학교 시절

사진20)주택 현관 손잡이(左)



흥미로운 것은 현관문의 세밀한 도마뱀形 문장식은 그의 미술학교 시절 스케치에서 표현된 것이 그대로 형상화되었다.(그림29, 사진20) 독일에서의 경험과 동방을 여행하는 동안 매료되었던 흰색을 이 주택에서 흰 회벽으로 마감함으로써 실험하였다. 따라서 이 주택은 잔느레가 동방여행의 경험과 건축적 체험을 나름대로

소화시켜 조합해 본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주택에서 그가 도입한 여러 가지의 건축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가와 별개로 그가 본 이미지들을 구현시켜 보고자 한 젊은 잔느레의 의욕이 그가 후일 대가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중요한 학습단계를 나타내 준다고 보여진다.³⁴⁾

6-4. 슈와브 주택(Villa Schwob)

1912년 이후 많은 미완의 프로젝트와 인테리어 설계 등을 하던 잔느레는 4년만인 1916년, 슈와브 주택과 라 스칼라 극장 설계를 의뢰받는다. 두 프로젝트는 그가 파리로 떠나기 전 해, 건축가로서의 독립적 능력을 검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의 부모님집을 보고 시계생산업자인 아나톨 슈와브가 의뢰한 슈와브 주택은 여러 고전의 해석을 적용시켜서 자신의 건축적 어휘를 이전보다 정제시켜 형상화하고자 한 시도이다.(사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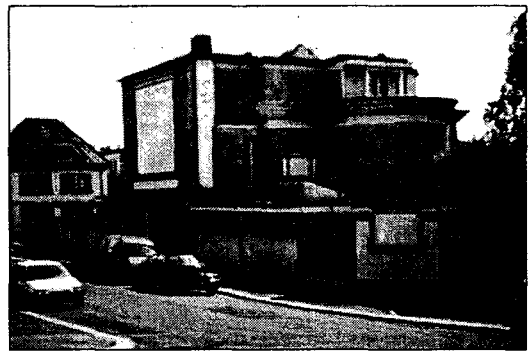


사진 21)슈와브 주택의 북동쪽 전경

대지는 중심지에서 약간 벗어나 꽤 가파른 경사지의 주택가에 위치하며 두브街(Rue du Doubs)와 뤼시옹街(Rue de la Fusion) 등으로 삼면이 도로에 면해 있는 교차점이다. 전체적

34) 이 주택에서 프리즈 장식, 입면구성, 평면형태 등에서 라이트의 프레리 하우스의 영향을 언급하는 책들이 많다. 그러나 1910년 베를린에서 열린 라이트의 작품전시회를 그가 보았다고 해도 그 영향을 찾아내는 것은 용이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건축실무의 특성상 책을 통한 간접 경험보다는 그가 몸으로 부딪히며 체득한 직접 경험들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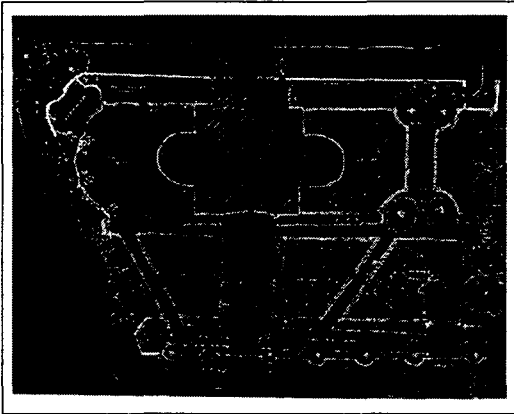


그림30)잔느레가그린 슈와브 주택 정원배치도, 대지주변 가로상황이 잘 나타난다.

인 배치는 북쪽 후면의 높은 도로면에 주출입구를 두고 하단의 낮은 도로로는 건물의 서쪽, 남쪽 입면이 전면의 높은 담장과 화단에 의해 절반만 나타난다.(그림30)

슈와브 주택의 입체를 보면 하지아 소피아성당처럼 정사각형의 입방체 양단을 반원 앵스들이 받쳐 주며 장축방향으로 매스가 퍼져 나가는 특성이 보인다.(사진 22) 그리고 특별한 장식 없이 부분과 전체의 비례와 조화가 드러나는 외관에서 원, 정사각형 등으로 이루어지는 기하학적 구성, 좌우대칭, 입면에 적용된 기준선(regulating line)등의 구성원리에서 보여지는 특성은 그가 고전의 사례를 바탕으로 계획을 시도한 것을 알 수 있다.³⁵⁾ 여기에서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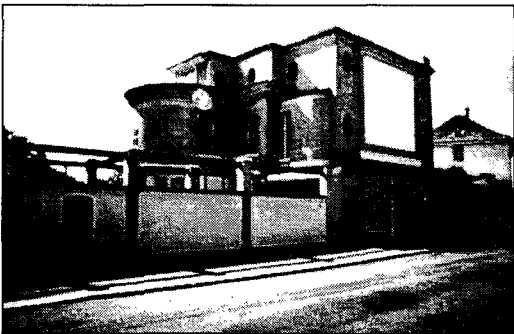


사진 22)슈와브주택의 북쪽 입면

35)Claude Garino, Le Corbusier La Villa Turque 1916-1917, Bureau d'Architecture, La Chaux-de-Fonds, 1987, pp.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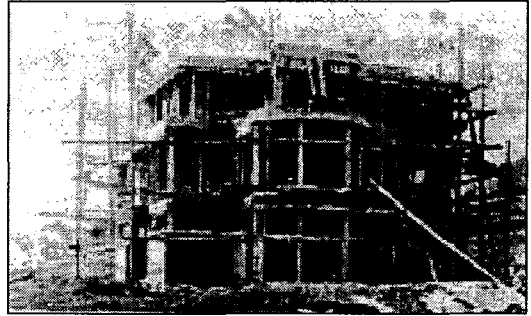


사진23)슈와브 주택 철근콘크리트 골조 시공 사진

주택과 많은 점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다. 즉 평지붕과 루프테라스가 처음으로 시도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택한 것 등은 그가 부모님의 주택을 계획한 이후 돔-이노구조 등을 연구하면서 사고가 체계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위한 건축'이란 화두에 답을 찾아가는 중요한 과정에 있음을 알 수 있다.(사진 23, 24)

그 집을 설계하는 동안 잔느레는 해고당하고, 재계약이 되었다가 일이 마무리되기 전에 소송을 당했다. 건축주는 총공사비의 증가와 불규칙한 일정 등에 대해 불평이 많았다. 결국 건물은 처음 설계대로 결코 지어지지 않았으며 장식은 생략되고 비싼 마감재는 경제적 재료로 대체되었다. 특히 잔느레가 파리에 체류하면서 설계에 대해 태만했다는 이유로 슈와브에게 제소당하여 그는 빌라를 규칙적으로 설계했음을 증명하는 날인된 많은 도면들-상세 혹은 폴 스케일의-을 통해 자신을 방어해야 했다.³⁶⁾



사진 23)완공당시의 실내 사진, 외부의 반원형태가 내부로 반전되어 나타난다.

36)Brooks, 1982, xxiv-xxv, 그 결과 슈와브 주택은 나머지 초기주택과 달리 그 도면들이 지금까지 대부분 있다.

르 꼬르뷔제가 초기 주택들을 자신의 작품에 신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1923년 '신건축을 향하여' 출판될 즈음 그의 건축관은 예전과 너무 바뀌어 있었다. 즉 신건축에서 주장하는 주택-살기 위한 기계, 대량 생산형 주택 등과 시공 기간만 1년이 넘게 걸린 초기 작품들은 너무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뾰족한 경사지붕과, 벽면장식 등은 그의 새로운 사고를 펼쳐 보이는 데 오히려 한계로 작용할 것으로 간주한 듯 하다. 비록 꼬르뷔제는 그렇게 판단하였고 초기 작품들이 지닌 건축적 가치는 미미하다 해도 그가 형성되어 가는 시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스펙트럼처럼 각 단계의 교육과 사고를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그의 건축적 습작에 해당하는 이 시기의 작품들은 꼬르뷔제의 형성기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판단된다.

VII. 마무리 말

잔느레가 라 쇼 드 풍에 오래 남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미 나날이 쇠퇴해 가던 고향은 야심 많고 헌신적이며 재능을 인정받은 그에게는 너무 좁은 무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주무대로 활동하다가 어린 시절 친구인 막스 뒤보아(Max Dubois)가 사무실과 비서, 전화기, 일거리, 주거까지 마련해 주고서야 잔느레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가고자 준비해 왔던 파리로 떠난다. 철근콘크리트 협회(Societe d'Applications du Beton Arme) 고문이란 직업을 시작으로 파리의 삶을 시작한 잔느레는 이후 17년간 살게 되는 자콥가(Jacob) 20번지에서 제 2단계 도약을 위한 자기 훈련을 시작한다.

잔느레가 라 쇼 드 풍에서 보낸 시기는 그의 평생에 걸친 창조 과정과 건축형태의 탐구에 마르지 않는 기억의 샘물처럼 지배적 영향을 끼친 것이었음은 그의 작품들과 글, 스케치 등을 통해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다. 어린 시절 잠시 살았던 전통농가의 굴뚝에서부터 젊은 시절 여행 스케치까지 그 기억들은 그의 내면적

이 침잠되어 있다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지난 뒤까지 곰삭혀진 뒤, 필요할 때마다 그에게 조형의 원천으로 재해석되면서 새로운 건축물의 원리로 재창조된 것을 볼 수 있다.

잔느레에게 공식적이며 체계적 건축교육의 기회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그의 형성기를 특징짓는 것은 미술교육, 타고난 예술적 감수성, 철학적 논리훈련, 쉽 없는 자기계발과 훈련, 시기 적절하게 만난 좋은 스승들, 또한 반골 기질이 강한 산악지방 출신이라는 지역적 특성-꼬르뷔제는 기존 체제에 편입이 잘 안되는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된다. 이는 파리에서 그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현시킬 기회가 없었다는 사실만큼 상징적이다.-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년시절부터 청년기까지 15-16년에 걸쳐 잔느레의 재능을 발굴하고 조각 훈련부터 건축공부, 실무, 교직 등의 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해 준 스승 레플라트니에는 훗날까지 그에게 뿌리깊은 영향을 미쳤다. 잔느레는 스승을 통해 조형예술의 최고 봉으로서의 건축에 대한 본질적 이해와 독자적 사고의 깊이, 자연형태로부터 추상화된 조형으로까지 유도해 내는 창조적 과정 등을 철저히 훈련받았다.

당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개별 사무실훈련과 여행 등의 수련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건축적 실무능력과 감각을 기르는 시기를 잔느레는 4년 2개월이란 시간동안 스스로 치열하게 노력하여 실무 및 여행 등의 다양한 훈련을 쌓은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 시기동안 당대의 선구적 건축가들-페레 형제, 베렌스 등-문하에서 실무를 익힐 기회를 가진 것은 행운이었으며 서너 차례에 걸친 스케치 여행들은 그의 독자적 안목과 취향을 배양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여진다. 또한 철학, 문학, 역사 등 다방면의 인문학적 지식의 바탕 위에서 글을 쓰는 훈련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아 청년기동안 이미 몇 권을 책을 출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잔느레는 파리로 진출할 당시 이미 상당히 체계적이고 알찬 다방

면의 경험 등이 축적되어 있었다. 이를 토대로 그는 자신만의 미술과 건축세계를 펼쳐 나갈 준비가 되어 파리에서의 새로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해 나간다.

그는 20세기 건축가 어느 누구보다 과거와 현재와의 역동적 교류를 통해 작품을 만들어 낸 예이며 그 증층적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의 작품들의 근본 바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역사 속의 위대한 건축물들의 원리를 끊임없이 탐색하여 발굴해 내었으며 반면 19세기 건축의 퇴락함은 옛 건축의 진정한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양식적 특성만 반복하는 것이라고 공격하였다. 그의 형성기 동안 받은 교육의 상당 부분은 과거의 건축과 예술, 조각 등을 관찰하고 그린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그가 역사에의 깊은 이해와 안목에서 출발하면서도 새 시대 건축의 사명을 깨닫고 근대건축의 거장 중의 하나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다.

이렇듯 건축가에게 있어 성장기의 체험과 교육이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다른 건축가들의 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시 출발로 돌아가 오늘날 우리나라 제도권내서의 건축교육에서 또 다른 르 꼬르뷔제를 꿈꾸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라는 우문을 다시 해 보게 된다.

참고문헌

- Allen H. Brooks(edit.), *The Le Corbusier Archive*, 32 Vols. NY Garland Pub. & Paris Fondation Le Corbusier, 1982 / Vol. 1. I. Early Buildings & Projects, 1912-1923
- A. Colquhoun, "The Significance of Le Corbusier", *The Le Corbusier Archive*, 1982, Vol. 1. pp. xxxv-xliii
- Allen H. Brooks(edit.), "Le Corbusier's Formative Years at La Chaux-de-Fonds", *The Le Corbusier Archive*, 1982/Vol.1 pp xv- xxxiii
- Claude Garino, *Le Corbusier La Villa Turque 1916-1917, Bureau d'Architecture, La Chaux-de-Fonds*, 1987
- Geoffrey H. Baker, *Le Corbusier-The Creative Search*, VNR Pr., E & FN SPON, USA, 1996
- Jean Jenger, *Le Corbusier Architect of a New Age*, Thames & Hudson, London, Eng. ed, 1996
- Le Corbusier, Journey to the East*, edit. & trans. by Ivan Zaknic, MIT, 1989, MA
- Le Corbusier, Towards A New Architecture*, 1927 trans. by F. Etchells, Praeger Pub., NY, 1972
- Le Corbusier & Pierre Jeanneret, Oeuvre Complète 1910-1929*,
- Paul V. Turner, *The Education of Le Corbusier*, Garland Pub., Inc., New York, 1977
- Paul V. Turner, *The Beginning of Le Corbusier's Education, 1902-07*, *Art Bulletin*, 78, pp.214-224
- Peter Blake, *Master Builders: Le Corbusier/Mies Van der Rohe / Frank Lloyd Wright*, Norton, 1996
- Stanislaus von Moos, *Le Corbusier Elements of a Synthesis*, MIT Pr., Cambridge, M.A., 1983
- William J. R. Curtis, *Le Corbusier : Ideas & Forms*, Phaidon, Hong Kong, 1995
- William J. R. Curtis, *Modern Architecture since 1900*, 2nd edit. Phaidon, Oxford, N.J., 1996

A Study on the Formative Years of Le Corbusier -La Chaux-de-Fonds, 1887-1917-

Ryu Jeon Hee

School of Architecture, Soongsi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Le Corbusier's early years of learning and training at La Chaux-de-Fonds. It is an attempt to show how Le Corbusier's groundwork was laid which characterize his work throughout the life.

Charles Edouard Jeanneret was trained as a watch engraver and wished to be a painter. C. L'Éplattenier was to play a decisive role in shaping the young introspective boy's future. He encouraged Jeanneret's habit of the close study and observation of nature.

Jeanneret was not the product of an established school, but instead made the unusual choice of educating himself. He found two indispensable sources of inspiration in study the past and in contemplating nature. His four years of self-education consisted of extensive reading, summer travels and winter layovers in larger cities-Vienna, Paris, Berlin-while sketching in museums or apprenticing local architects-Perret, Behrens-. All these impressions then blended together to become part of a comprehensive source book of knowledge and imagination of the later Le Corbusier. A largely self-taught man, he never stopped making notes, drawing and writing, always aspiring to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meaning and underlying principles of objects and architecture.

Jeanneret's five villas in La Chaux-de-Fonds are barometers which show the sequences of his development and change as an architect. In 1917, being thirty, he uprooted himself from his hometown to get a wider range of opportunities and moved to Paris. By that time Jeanneret was almost ready to blossom into Le Corbusier. It was during this formative years of his life that Le Corbusier established the working method, mind-set and philosophical basis that determined the course of an architect in the making.